

고규홍의 '나무 생각'



오동나무 낙엽에 담긴 가을의 전설

나무는 계절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보여 준다. 절정을 이룬 단풍 숲으로 스미는 바람결에 가을이 담겼다. 어느 때보다 나무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는 계절이다. 나무가 보여 주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도로를 메운다.

동나무 한 잎'은 쓸쓸한 가을 풍경의 백미다. 세상살이의 시름을 모두 담아낼 만큼 너른 잎 때문이다. 예로부터 오동나무 잎 떨어지는 풍경은 깊어 가는 가을의 상징이었다. 이 땅의 가을 밤을 오동추야(梧桐秋夜)로 표현한 것도 그래서다. 옛사람들은 땅을 밟으면 오동나무를 심었다. 시집갈 때까지 한 그루의 오동나무를 잘 키워 장롱 한 채 지어 주겠다는 마음이 컸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혼사를 치렀던 옛날에 장롱 한 채 짓기 위해 오동나무를 심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오동나무가 장롱과 같은 가구를 짓는 데에 더없이 좋은 재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빨리 자라는 속성수라는 이유가 더 컸을 게다.

오동나무의 잎은 어느 나무에 비해 무척 넓다. 플라타너스·틀립나무와 같은 몇몇 외래 식물을 제외하면 이땅의 나무 가운데 가장 큰 잎을 가졌다. 따라서 광합성에 지어내는 양분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다. 초목의 넓은 잎으로 지칠 줄 모른 채 이어온 광합성은 오동나무를 여느 나무보다 빨리 자라게 한다. 그야말로 쑥쑥 크다. 멀지 않아 떠나게 될 딸아이를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채비해야 한다는 아버의 초조한 마음을 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곰곰 따져보면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아 혼사를 치러야 했던 시절에 혼수로 오동나무 장롱 한 채를 짓는 건 언감생심이다. 아무리 빨리 자라는 속성수라 해도 십여 년 만에 장롱을 지을 만큼 넉넉한 양의 목재를 생산해 내지는 못한다. 옛 아비들이라고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딸아이를 생각하고 아버이 오동나무를 심었다. 어차피 언젠가 떠나야 할 딸아이를 평안한 훗날을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이다.

가구재 뿐 아니라, 옛 약기에도 오동나무는 최상급의 재료였다. 거문고와 가야금은 물론이고, 장구 역시 오동나무로 만든 통을 '오동통'이라 부르며 최상급으로 쳤다. 오동나무는 사람들의 그 많은 쓰임새를 위해 봄부터 그리 너른 잎을 내고 수국이 양분을 지어 내 제 몸집을 키워 왔던 것이다.

오동나무는 살아 있는 동안 나뭇잎에 서부터 나무줄기까지 요긴하게 쓰인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긴하게 쓰이기 위해 한겨울 정도로 큰 잎을 돋워 내고, 봄부터 단풍 든 가을까지 양분을 지어 몸피를 키웠다. 가을바람 서늘해지자 제 할 일을 다한 나뭇잎은 창졸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돌아온 곳, 흙으로 돌아갈 채비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나무에게 허락된 천연색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자연이 빚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다양한 빛깔을 드러낸 단풍은 아름답지만 곧 시들어 떨어져야 한다. 이별과 조락이 전제된 아름다움이어서 단풍은 안타깝다. 나뭇잎에 오른 단풍 빛깔이 아름답다는 건 낙엽 채비를 마쳤다는 신호다. 나뭇가지에서 탈락한 나뭇잎은 낙엽 되어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위해 거름으로 돌아간다. 이 가을, 나무는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순환의 지혜를 말없이 보여 준다.

가을바람 따라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나뭇잎들이 천천히, 빠르게, 혹은 멈칫멈칫 떨어진다. 이 땅의 모든 나무 가운데 오동나무 낙엽은 가을의 대표적 상징이다. 허공에 추락하는 '오

돌아갈 곳을 잘 아는 것은 모든 생명이 갖추어야 할 지혜다. 온갖 말들을 아무런 책임도 없이 내뱉어 놓고, 되돌아갈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는 한없이 무지몽매한 이 땅의 인간들이 편을 갈라 벌이는 말쑥음의 정치 행태를 바라보자니, 들고 남의 지혜를 완벽하게 갖춘 가을 나무의 낙엽이 새삼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오동나무 넓은 잎이 한 잎 두 잎 낙엽하며 사람의 마음에 던져 오는 생명의 지혜가, 이 땅의 말 많은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침묵의 웅변이, 벼락같은 야단으로 다가오는 가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천만·금호호·영암호 등 20곳을 '고위험' 철새 도래지로, 주요 암담·영산강·대동저수지·고천암 등 12곳을 '중위험' 철새 도래지로 분류했다. 이는 과거 AI 발생 상황과 야생 조류 검출 현황, 가금류 사육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분류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철새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많게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철새 도래지 96곳을 대상으로 예방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H5형 AI형원 6건이 검출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고위험' 철새도래지에 근제 독차량과 광역 방제기를 추가로 배치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중위험' 철새 도래지에도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매일 소독을 하도록 했다. 행정 당국뿐만 아니라 가금류 사육 농가들 또한 빈틈없는 방역으로 AI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주암호 생태관 개관 지연 준비 소홀 아닌가

보성군이 100억 원을 들여 주암호 생태관을 완공하고도 수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인공 습지인 주암호 생태 습지에 대한 교육과 전시를 위해 건립했지만 위탁 운영자조차 선정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운영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전시관을 제울 콘텐츠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 통로 등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는 바람에 보강 작업을 하느라 준공도 늦어졌다. 개관이 늦어져 이미 지어진 건물에 이기가 끼는 등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자칫 흉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애초 7월 개관을 임시 일정이었던 대로 내년 7월 이전에는 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보성군은 국비 50억 원과 군비 49억 700만 원, 도비 9300만 원을 들여 복내면 유정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97㎡ 규모의 '주암호 생태관'을 지난 3월 완공했다. 군은 이 시설을 생태 교육의 요량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영상관과 전시관·체험관 등을 갖췄다. 습지 만들기 및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을 조성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전 준비가 소홀했던 탓이라고 볼 수 없다. 전시할 유물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엇그제 개관할 광주시 남구의 '오방 최홍중 기념관'과 마찬가지로 '일단 짓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의 산물이다. 보성군은 콘텐츠 및 시설 보강과 위탁 운영자 선정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 개관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군은 완공 당시 7월에 개관하겠다고 홍보에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지난여름에 문을 열어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개방해야 했지만, 여태껏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관을 운영할 위탁

無等鼓

대학 졸업 후 친구 몇몇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갔다. 대학에서도 오로지 법전만 파고 살았던 이들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3~5년 만에 '바늘구멍'을 모두 통과했다.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을 정도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곳곳에서 '맛선' 요청도 빗발쳤다.

사가 참여하는 공개 재판을 한다. 3심 제도를 통해 나라 검증을 거치는 독립기구다. 반면 검사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에 의해 상명하복해야 하는 권력기관 검찰의 일원이다. 수사권과 함께 독립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정권의 총견이나 시녀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 개혁 2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에서도 경쟁을 계속하고, 졸업 후에는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을 합성한 순위로 따라 판사·검사·변호사가 됐다. 2000년대 들어 성적 우수자들이 역대 연봉을 받는 유명 로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순서는 유지되고 있다. 판사·검사는 사법 권력을 갖게 되고 퇴임하면 너무나 당연한 '전관예우'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다. 2년 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대체되면서 '없는 자'의 출셋길은 더더욱 좁아졌지만, 이 같은 추세는 여전하고 거기에 세습까지 더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떠나, 지금의 검찰은 어느 정권에서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 정부 조직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제와 감시의 대사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 쓴 기저를 검찰에 고소하거나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 보기에 따라 다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전조도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언제나 검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점이다. 검찰 자신에게는 법과 원칙을 더욱 추상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 역시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판사는 일단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변호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의료칼럼

감기와 독감의 차이



이명수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교수

코막힘, 재채기, 오한,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는 사계절과 무관하게 사람들에게 침투한다.

고 부른다. 감모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풍한(風寒)으로 인한 감모가 많다. 말 그대로 추운 날씨, 차가운 바람에 많이 노출되면 감성 상기도 질환이 잘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다. '겨울철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감기에 안 걸린다'는 말이 실제로 맞다.

겨울철에는 기침도 하고 콧물도 흘리는, 소위 '감기에 걸렸다'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또 겨울이 오기 전 온가족이 병원을 찾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다. 이들 정도의 잠복 기간 뒤 급격히 발병하는데 두통, 근육통, 발열, 오한, 전신 무력감이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발열은 39도 이상의 고열이 며칠 동안 지속되며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기침이나 전신 무력감은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독감은 주로 가을, 겨울철에 나타난다.

한의학에서 풍한으로 인한 감모는 그 원인인 풍한을 제거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여러 치료법을 사용한다. 땀을 내어 인체의 표면 부위에 있는 사기(邪氣)를 내게 하는 나쁜 기운)를 없애는 한약재를 쓰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오한, 두통, 기침, 콧물, 소화기 증상 등을 완화시키는 한약재를 통해 치료한다.

는 낮에, 추운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개인 위생 등 평소 생활 습관을 신경 써야 한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청결하지 않은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사람이 많은 곳에 지나치게 자주 가게 되면 그만큼 병원체에 노출될 확률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무엇일까?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될까? 반대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감기와 독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명확한 질환이다. 발병 원인부터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인뿐만 아니라 감기와 독감은 증상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감기는 평소 '감기에 걸렸다'고 말하는, 비교적 경미하고 흔한 증상이 나타나며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만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면역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평소에도 영양을 충분히, 균형 있게 섭취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식사를 대충하거나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아 몸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감기에 잘 걸리게 된다.

난방이 되고 있는 실내에 오래 있으면 건조한 공기가 코 점막,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힘이 약해진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이다.

독감의 경우 매년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엔 맞은 것이 올해까지 지속되지 않으면 매년 꾸준히 맞아 독감에 걸릴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virus)다. 그중에서도 리노바이러스(Rhinovirus)가 가장 흔한 감기의 원인이다. 이들 정도의 잠복 기간 뒤 콧물, 기침, 인후통,

반면 독감은 두통과 근육통이 감기보다 심하게 나타나며 고열을 동반한다. 전신에 피로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무력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

또 춥다고 실내에만 있으면 기력이 떨어지기 쉽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외부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기력을 길러주는 생활이 필요하다. 기운이 떨어지는 새벽보다

기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이현 광주 남구청 기획실장

세일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부산 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약 30MW급으로 연간 25만MW 전력을 생산, 해운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 14% 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 250m 내에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종합병원, 문화원 등 대형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시설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은 소음과 관련해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한 시설이었습니다.

제도시로 발 빠르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분야에서 호남 최다인 다섯 건 12개 단위 사업이 100% 선정돼 국책 사업을 비롯해 대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 쓴 기저를 검찰에 고소하거나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 보기에 따라 다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전조도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폭발 가능성과 소음이 나 악취 등 유해성 문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별도로 수소를 저장하는 수소 탱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 도시가스에서 분리된 수소는 바로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폭발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주변에서 화재가 일어났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검증과 발전을 거듭해 이룩한 기술로,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 등이 분야에서 세계 6대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는 47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들 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자그마치 352.8MW에 달합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부산 금융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일정 정도의 구비 부담을 필요로 하는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는 우리 남구의 빈약한 재정 여건의 흠을 메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민관 협의체를 유지해 희망하는 동 주민들과 함께 유해성 및 안전성 문제도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남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힘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검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점이다. 검찰 자신에게는 법과 원칙을 더욱 추상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 역시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기반센터 발전기금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설 기간 중 약 100억 원의 특별 지원금과 해마다 약 8000만 원이 기본 지원금으로 지원돼 세수가 부족한 우리 남구에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네 차례 현장 탐방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날에는 남구 주민기자단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등 70여 명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있는 부산 그린에너지 방문했고, 남구의회 의원님들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는 활기찬 경제 도시 건설을 목표로 관내에서 에너지 밸리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남구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송암문화산단 조성 추진과 혁신도시 인접지역이라는 위치적 장점을 살려 경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